

 <b>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b>		<b>보도자료</b>	
보도일시	2018. 6.1.(금) 조간 (인터넷·온라인 5.31, 14: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부서	국가교육회의기획단
배포일시	2018. 5. 31(목)	담당팀장	조민환(02-2100-1314)
		담당자	서기관 김태훈(02-2100-1315) 사무관 박경희(02-2100-1312)

##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

### - 국가교육회의 제4차 회의 개최 -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5월 30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론화 범위는 4월 16일(월)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에 따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공론화 범위를 국가교육회의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 이로써 4월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서 논의를 요청한 사항과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견들 중 앞으로 공론화위원회 주관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대상 범위가 명확해졌다.

#### [추진 경과]

-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4월 26일 출범 이후 한 달여 동안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 먼저 4개 권역\*에서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하였다. 기존 전문가 중심의 의견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매회 2시간 이상 참석자 누구나 의견을 발표하거나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대전(5.3), 광주(5.10), 부산(5.14), 서울(5.17)/1,730여명 참석 및 2,500여건 의견 제안

- 아울러,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여러 주체의 의견과 논거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하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를 6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 교원 관련 단체(5. 4), 일반 학생(5. 10), 일반 교원(5. 10), 학부모단체·시민단체(5. 11),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처장(5. 16), 대입 전문가(5. 18)

- 이와 함께, 학생, 학부모, 교원 의견을 더욱 충실하게 파악하기 위해 민간 조사 전문가를 통해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좌담회(FGI, Focus Group Interview)를 6회 개최\*하였다.

\* 교원 2회(5.17), 학부모 2회(5.18), 학생 2회(5.19)

- 이 외에도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 [공론화 범위 검토 대상 및 설정 기준]

- ☐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통해 논의를 요청한 사항과 그동안 국민제안 열린마당 등을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을 검토하여 공론화 범위를 마련하였다.
- ☐ 공론화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 국민적 관심도, 둘째,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셋째,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 ☐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론화 범위에 포함하여 이후 공론화위원회 주관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 기술적·전문적 성격이 높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육부가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공론화 범위]

-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범위에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3가지 사항을 포함하였다.

### <공론화 범위 (상세 붙임1)>

#### 1. 선발 방법의 비율

- ① 학생부위주전형(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위주전형 간 비율 검토
- ②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 2. 수능 평가방법 : (1안)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 상대평가 유지 원칙

- 첫째, 선발 방법의 비율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型的 비율 검토를 공론화 범위에 포함하였다.
  - 학생부위주전형을 구성하는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위주전형은 대입 선발방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특정 선발전형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돼 왔다.
- 둘째,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를 공론화 범위로 설정하였다.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학생부위주전형 등에 폭넓게 활용되어 대입전형에서의 비중이 높으며, 그간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전형의 변별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 또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는 선발방법의 비율과 관련이 깊어 이에 포함하였다.
- 셋째, 수능 평가방법으로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원칙 두 가지 세부안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하였다.
  - 이는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논의 시 결정을 유예하였던 핵심 사항이며 현재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의 중심 사항으로 판단하였다.

- 아울러, 공론화 범위로 설정된 3가지 사항에 대해 국가교육회의는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와 내부 논의를 거쳐 **교육부 이송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 특히,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교육부 이송안은 ‘(1안)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 상대평가 유지 원칙’, ‘(3안) 수능 원점수제’로 3가지 세부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중 ‘(3안) 수능 원점수제’는 의견수렴 결과, 국민적 관심도가 낮고 점수경쟁 유발 및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 심화 등이 지적되어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 ‘(1안)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포함되어 있는 ‘수능 100% 전형 시 원점수 제공 방안’은 현실 적용 가능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며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이는 향후 교육부에서 필요한 경우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권고 사항]

- 한편, 대입전형의 안전성 등을 위해 교육부에 두 가지 사항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 첫째, 교육부가 필수 논의 사항으로 요청하였던 ‘**선발 시기의 문제**’(수시·정시 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며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 국민제안 열린마당이나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수시·정시 통합에 대해 **반대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수시·정시 유지 필요성〉

- 수시·정시 통합 시 수능, 학생부 등 전형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형의 확대로 학생 부담 증가 및 대입전형의 복잡성 증가 우려
- 전형 기간 축소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부실 및 공정성·신뢰성 저하 우려
- 전체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형 방법 및 일정 조정, 수험생 응시횟수 조정 등 수반하며 조정 과정에서 대학 및 전문대학 간 갈등 또는 혼선으로 대입전형의 안정성 저하 우려

□ 둘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함께 제기되는 상황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불공정성과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공론화 범위 제외 사항]

□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 중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3가지 사항과 현행 유지를 권고한 선발시기의 문제를 제외한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전문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이후 교육부가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교육부에 통지할 계획이다.

- 다만, 자기소개서 폐지와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의 수능과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 〈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미포함 및 교육부 논의·결정 사항 〉

1.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중 선발의 투명성 제고 : 전형서류 개선(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등
2. 수능 과목 구조
3. 기타 : 지필고사 축소·폐지, 면접·구술고사 개선, 수능 EBS 연계율 개선

□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 제출된 여러 의견들은 대부분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에 포괄되는 사항이었으며, 이에 포괄되지 않는 일부 사항들의 경우에는 공론화 범위에 포함할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 이는 교육부 등과 공유하여 향후 공론화 과정 및 정책 수립 등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이후 절차]

□ 이번에 결정된 공론화 범위는 공론화위원회와 교육부에 보낼 예정이다.

-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공론화 의제로 구체화되며, 이후 공론화 의제를 중심으로 권역별 토론회, TV 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를 거쳐 공론화 결과를 도출한다.
  - 이어서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해당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며, 이는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 교육부 이송안 중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된 사항은 교육부에서 8월 대입제도 개편 방안 발표 일정을 고려하여 후속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하여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말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며
  - “향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중립적으로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운영하여,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대입제도의 큰 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 밝혔다.

붙임1.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붙임2. 주요 의견수렴 결과(국민제안 열린마당, 온라인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전문가 협의, 일반 학생·학부모·교원 좌담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교육회의 기획단 서기관 김태훈(☎ 02-2100-1315), 사무관 박경희(☎ 02-2100-13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 I. 검토 배경 및 경과

### □ 검토 배경

-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4.16)에 따라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공론화 범위 설정 추진

\*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

### □ 관련 경과

- 국민제안 열린마당 : 대전(5.3), 광주(5.10), 부산(5.14), 서울(5.17)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 교원 관련 단체(5.4), 일반 학생(5.10), 일반 교원(5.10), 학부모단체/시민단체(5.11), 대학/전문대 입학처장(5.16), 대입 전문가(5.18)
- 일반 학생/학부모/교원 좌담회(FGI) : 교원(5.17), 학부모(5.18), 학생(5.19)
-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온라인 의견수렴(4.16~)

## II. 공론화 범위 설정 논의 대상 및 기준

### □ 논의 대상

-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4.12. 교육부 제출)의 논의 요청 사항

#### <논의 요청 사항>

[주요 논의 사항]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공론화를 거쳐 반드시 결정토록 요청

- |        |  |
|--------|--|
| 내<br>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선발방법의 균형(수능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간의 적정 비율)</li><li>○ 선발시기의 문제(수시·정시 통합 여부)</li><li>○ 수능 평가 방법(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제)</li></ul> |
|--------|--|

[추가 논의 사항]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공론화를 통해 필요한 경우 결정 또는 의견 제시

- |        |  |
|--------|--|
| 내<br>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li><li>○ 수능 과목 구조</li><li>○ 기타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객관식 지필고사 시행 금지, 면접·구술고사 개선, 수능 EBS 연계율</li></ul> |
|--------|--|

-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주관 의견수렴 결과 중 교육부 이송안에 포괄되지 않는 사항

## □ 공론화 범위 설정 기준

- 국민적 관심도\*,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론화 범위 설정

\* 국민제안 열린마당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로 나타난, 논의사항 별 제안 빈도 참고

## Ⅲ. 공론화 범위 포함 사항

### 1. 선발 방법의 비율

#### □ 학생부위주전형(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위주전형 간 비율 검토

- 객관적인 수능시험을 주된 전형요소로 하는 수능위주전형과 학생부를 주된 전형요소로 하는 학생부위주전형(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간 비율 논의

※ 학생부위주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으로 구분됨

- 학생부종합전형 :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전형
- 학생부교과전형 : 학생부 교과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

(\* 출처 :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 시험 변별력 확보, 학생 부담 완화, 전형방법 간 비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논의

### 2. 수능 평가방법

- (1안)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 수능 시험 전 과목 9등급 절대평가 전환

2019~2021 수능			⇒	2022 수능
수능과목	영어, 한국사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모든 과목
평가방식	절대 9등급	상대 9등급, 표준점수, 백분위		절대 9등급



○ (2안) 상대평가 유지 원칙

-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상대평가 유지

▶ 아랍어 등 특정언어 쏠림이 있는 '제2외국어/한문'에 절대평가 도입

※ 영어, 한국사는 기존대로 절대평가 유지

2019~2021 수능		⇒	2022 수능	
절대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영어, 한국사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국어, 수학, 탐구

※ 수능과목 구조에서 모든 학생들이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필수 이수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이 포함될 경우 절대평가 도입

## IV. 권고 사항

### 1. 선발 시기의 문제(현행 수시·정시 분리 유지 권고)

-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위해 교육부에 현행 수시·정시 분리 유지 권고 및 공론화 범위 제외

#### [수시·정시 유지 필요성]

- 수시·정시 통합 시 수능, 학생부 등 전형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형의 확대로 학생 부담 증가 및 대입전형의 복잡성 증가 우려
- 전형 기간 축소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부실 및 공정성·신뢰성 저하 우려
- 전체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형 방법 및 일정 조정, 수험생 응시횟수 조정을 수반하며 조정 과정에서 대학 및 전문대학 간 갈등 또는 혼선으로 대입전형의 안전성 저하 우려

※ 국민제안 열린마당,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수시·정시 분리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남

### 2.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조치 권고

- 의견수렴 결과,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 요구가 높고, 그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육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함

## V.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 중 공론화 범위 제외 및 교육부 논의 결정 사항

### 1.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중 ‘선발의 투명성 제고’

- \* 교육부 이송안은 국가교육회의에 ‘선발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논의를 요청  
(‘학생부 기재 개선’은 교육부 정책 숙려, ‘대입정보 격차 해소’는 즉시 실시 사항으로 기술)

#### □ 전형서류 개선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 (제외 사유) 고교의 작성 현황 및 대학별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입학사정관 등 대학 관계자, 교원, 학생·학부모 등의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기술적·전문적 사항
- (부대 의견) 자기소개서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 필요
  - ※ (수렴 의견) 자기소개서는 학생이 자신을 드러낼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며 대학에는 판단의 여지를 줄 수 있음, 교사추천서는 인성과 생활태도를 제시할 수 있으나 교사의 입장에서 작성 부담이 크며 좋은 점만 작성할 수 밖에 없음(좌담회)

#### □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제 의무화, 대입 부정 엄정 조치

- (제외 사유) 국민의견 제안 빈도가 낮고 제기된 의견 중에는 반대 의견을 찾기 어려움

### 2. 수능 과목 구조

- (제외 사유) 과목 간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며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과목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기술적·전문적 사항이며, 국민의견 수렴 시 의견 제출 빈도가 낮음
- (부대 의견)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과목의 수능시험 제외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학교 현장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면밀한 검토 필요
  - ※ (수렴 의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 반영을 위해 수능과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일부 교원관련 단체 등은 과목의 특성 상 수능 출제 제외 의견 제기(협의회)

### 3. 기타 사안

#### ☐ 객관식 지필고사 축소·폐지

- (제외 사유)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기술적·전문적 사항
- ※ (수렴 의견) 수능과 유사한 유형으로 중위권 학생들에게 희망의 기회라는 의견과 수능과 학생부 이외 또 다른 전형으로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 제기(온라인 의견수렴, 좌담회)

#### ☐ 면접 구술고사 개선

- (제외 사유) 국민의견 제안 빈도가 낮으며,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 출제는 현행 법률 규정\* 내용에 해당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 (수렴 의견) 구술고사에 대한 찬반 의견이 함께 공존하나, 구술고사에 따른 사교육비 및 학업 부담에 관한 의견과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 전공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으로 대학 자율로 해야한다는 의견 제기(좌담회)

#### ☐ 수능-EBS 연계율 개선

- (제외 사유) 국민의견 제안 빈도가 낮으며 간접 연계의 경우 수능 문항 및 과목별 특성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 ※ (수렴 의견) 일부 교원 관련 단체는 연계 폐지 의견 제출(협의회), 교원은 수업 중 EBS 교재 활용 및 암기식 교육 문제 지적/학생·학부모는 시험부담 경감 기능 언급(좌담회)

## [붙임2] 주요 의견수렴 결과

### 1. 대입제도 국민제안 열린마당 개최 결과

- (일정) 권역별 4회 순회 개최<대전(5.3), 광주(5.10), 부산(5.14), 서울(5.17)>
  -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듣는 '열린 방식'으로 진행
 

\* 2시간 이상 참석자 의견 청취, 다양한 참여방식(구두발표, 모바일, 메모지, 서면) 활용, 실시간 무대 영상 ※ 홈페이지 온라인 의견 접수 병행
- (참석자수) 1,730여 명<대전 450, 광주 350, 부산 450, 서울 480여 명>
- (제안건수) 2,496건(논의 사항별 상세 분류 시 3,852건)
  - (제안자별 분류) 교원 1,076건(46.3%), 학부모 671건(28.9%), 학생 181건(7.8%), 전문가 145건(6.2%), 일반국민 133건(5.7%), 관련 단체 94건(4.0%), 기타 24건  
※ 무응답 172건
  - (연령별 분류) 40대가 42.7%(992건), 50대 38.7%(899건), 30대 8.4%(194건), 10~20대는 7.2%(168건) ※ 175건 무응답
- (제안 빈도\*) 제안의견 3,852건(상세분류 기준)을 8개 논의사항 기준 분석
  - 선발 방법의 균형 35.6%, 수능 평가방법 17.3%, 선발 시기 15.1% 순

항목		빈도	비율
교육부 이송안 주요 논의사항	① 선발 방법의 균형	1,371	35.6%
	② 선발 시기	582	15.1%
	③ 수능 평가방법	668	17.3%
교육부 이송안 추가 논의사항	④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선발의 투명성 제고)	243 (36)	6.3% (0.9%)
	⑤ 수능 과목 구조	27	0.7%
	⑥ 기타 사안**(수능 최저학력기준, 지필고사, EBS 연계율, 면접 등 4개 항목 관련)	83	2.2%
교육부 이송안 논의사항 외	⑦ 대학입시제도 관련 기타 의견	347	9.0%
	⑧ 교육개혁 등 기타 의견 (공교육 정상화, 학교교육 개혁 등)	531	13.8%
합 계		3,852	100%

\* 학생부 기재 항목 개선(58건), 학생부 작성 관리·감독 강화(56건) 등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관련(47건), 수능 EBS 연계율 개선 관련(11건) 등

## 2. 국가교육회의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 (제안 건수) 1,504건\*(논의 사항별 상세 분류 시 2,260건)

\* 국민제안방 593건, 대입제도 개편 주제토론방 911건/분석 기간: 4.16~5.18

○ (제안자별 분류) 제안자 유형이 나타나는 829건\* 중 학부모 60.3%(500건), 학생 17.4%(144건), 일반국민 11.1%(92명), 교원 6.3%(52건)

□ (제안 빈도) 제안의견 2,260건(상세분류 기준)을 8개 논의사항 기준 분석

○ 선발 방법의 균형 36.9%, 학생부종합의 공정성 제고 13.3%, 수능 평가방법 9.9% 순

항목		빈도(건)	비율
교육부 이송안 주요 논의사항	① 선발 방법의 균형	834	36.9%
	② 선발 시기의 문제	123	5.4%
	③ 수능 평가방법	223	9.9%
교육부 이송안 추가 논의사항	④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선발의 투명성 제고)	301 (15)	13.3% (0.7%)
	⑤ 수능 과목 구조	67	3.0%
	⑥ 기타 사안**(최저학력기준, 지필고사, EBS 연계율, 면접 등 4개 항목 관련)	195	8.6%
교육부 이송안 논의사항 외	⑦ 대학입시제도 관련 기타 의견	93	4.1%
	⑧ 교육개혁 등 기타 의견 (학교교육 개혁 등 의견)	424 (258)	18.8% (11.4%)
합 계		2,260	100%

\* 학생부 작성 관리·감독 강화(105건), 학생부 기재 항목 개선(100건) 등

\*\* 객관식 지필고사 시행 금지 관련(94건),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관련(67건), 수능 EBS 연계율 개선 관련(15건)

### 3.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주요 결과

#### <1. 교원 관련 단체 협의회>

#####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 5. 4.(금) 13:30~17:00/ 한국장학재단 회의실
- 참석자 : 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총 7개 단체 관계자 등

##### □ 주요 협의 결과

- (교사노동조합연맹)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수능·학종 비율 논의 불필요
  - 학생부 기재사항을 정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만 인정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기준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생부종합 전형을 발전시킬 필요
- (실천교육교사모임) 선발 비율은 학생부 우위의 현행을 유지하고 불공정 요소를 개편하여 2025년으로 논의의 축을 옮길 필요가 있으며,
  - 선발시기 및 수능 절대평가화 확대(국어, 수학)는 입시인원이 감소되는 2025년 대입 개편시까지 유예 필요
- (전교조) 학교수업에 충실한 학생들을 위해, 학생부교과전형을 확대 하고 수능·학종은 이를 위한 보완적 전형으로 활용
  - ※ 학생부교과전형 60% 이상, 수능위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은 각각 20% 이하로 제한
  - 수능은 5등급 절대평가제로 하고, 출제범위도 국·영·수 과목의 범위 축소 및 일부 탐구과목으로 제한하여 학생 부담 해소 필요
-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절대(성취)평가제, 교사별 평가제로 학생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수능은 공통과목\*에 한정하여 절대평가제 실시
  - 평가제도 개편 시에는 상대평가제(1학년)과 절대평가제(2,3학년)를 병행하여 안정적인 정착 추진 필요

\*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수능은 공통과목\*만으로 2회(1학년말, 2학년말) 절대평가 9등급제로 실시하고, 대학은 영역별 가중치 및 동점자 처리기준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 **(좋은교사운동)**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2025년 대입개편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을 논술형으로 실시하고, 2025년 이후 전과목을 논술형 수능으로 전환할 필요

- **(한국교총)** 학교교육 정상화 및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대학 자율성 보장 조화, 혼란·갈등 최소화 위해 단계적 개선 필요

- 수시·정시 선발 비율은 논의를 통한 균형 유지가 필요하며, 전형 일정 통합은 학생의 선택권 축소 및 일정 촉박 등 문제 고려 검토 및 전 과목 절대평가 추진은 신중, 합의 요구

붙임

교육단체별 주요입장(요약)

구분	선발방법	선발시기	수능평가	그 외 사항
교사노동조합 연맹	• 논의 불필요 (학종전형 교사 추천서 제외 등 학생부 개선)	• 수시, 정시 통합 모집 (수시에는 수능점수 활용 불가능)	• 전과목 절대 평가 전환	• 내신 성취평가제 전과목 확대 도입, 교사 자율평가권 보장 • 2025 대입개편 교육주체 참여 논의기구 구성
실천교육교사 모임	• 학생부 우위 현행 유지	• 2025년 대입 개편까지 유예 (수정시 분리유지)	• 2025년 대입 개편까지 절대 평가 확대 유예	• 학생부 불공정 요소 개편 하며 2025로 논의축 출길 필요
전교조	• 학생부 교과 60% 이상, 수능·학종은 각각 20%이하	• 수시, 정시 통합 모집	• 전과목 5등급제 절대평가 (국,영,수,탐구 영역으로 과목 축소)	
전국진로진학 상담교사협의회	• 학생부 중심 지속적 확대	• 수시, 정시 통합 모집	• 공통과목만으로 9등급 절대 평가 실시	• 성취평가제 및 교사별 평가제 도입
전국진학지도 협의회	• 대학 자율	• 수시, 정시 통합 모집	• 공 통 과 목 만 으로 9등급 절대평가 실시 (2회 실시)	
좋은교사운동	• 현행 학생부 전형 위주 선발 유지 (대학 자율 영역)	• 수시, 정시 분리 유지	• 논 술 형 으 로 전 환 (22년:통합사회, 통합과학 →25년:전과목)	• 수능 절대, 내신 성취평가제 동시 도입
한국교총	• 선발 비율 균형 유지 논의 필요	• 수시, 정시 통합 모집 신중	• 장 기 적 으 로 절 대 평 가 에 찬 성 하 나 , 2022학년에는 합의 전제	

## <2.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 협의회>

###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 5. 11.(금) 13:30~16:40/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 참석자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등 20개 단체

### □ 《주요 학부모 및 시민단체》 주요 협의 내용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시로는 수도권 대학 진학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수능전형과 학생부전형 비율을 5:5로 수능전형 확대, 정시 최소 50%까지 확대
  - 수능 전 과목 상대평가 전환,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대입전형에서 제외, 대학의 선발 방법과 기준(교과항목 반영비율, 정성평가 기준) 사전 공개, 선발과정의 투명한 시스템 구축
- (교육디자인네트워크) 수시와 정시 통합, 수능 전과목 9등급 절대평가를 지지하며, 장기적으로 수능 자격고사화 필요
  - 내신절대평가, 고교학점제 도입, 2025학년도 대입제도에 대한 논의 필요, 고졸자들도 질 높은 직업생활을 통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경제적 혁신 병행 필요
-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022 대입제도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편, 교육비전과 목표 설정 후 교육과정-교수법-내신평가-대학교육-대입전형 제도를 세트로 바꾸는 방식으로 중장기적 접근 필요
  - 고교교육과 대학교육 연계, 수능은 지식과 역량 동시 측정, 수능용도 2가지(자격고사, 정시전형도구) 동시 추구, 상대-절대평가 이분법 논쟁에서 벗어나야 함
- (교육희망네트워크) 대입제도개편 이전에 교육비전과 목표를 먼저 공론화 필요, 이번 개편은 과도기적 부분적으로 최소한만 수정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탐색 필요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능과 고교내신 절대평가 동시 도입, 이를 위해 2021년도까지 특권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 고교서열화 폐지 필요
  - 수능 9등급 절대평가 도입(2025년부터 수능 5등급 절대평가, 논·서술형평가 도입), 고교 내신 5등급 절대평가(고2~3 선택과목 우선 도입), 학종의 비교과 영역 대폭 축소
-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수시와 정시 비율을 현재와 같이 유지, 수시와 정시 선발시기 통합, 수능 절대평가(수능과목 축소-공통과목위주) 학교생활 기록부 개선(비교과 활동은 교과 영역으로 흡수)으로 고교교육 정상화와 학생부담 감소시킬 필요
-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대입전형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수능 3가지로 단순화, 수능 대폭개선, 수능절대평가 공론화 필요
  - 대학입시 부정·비리 감독 강화, 원스톱 대입제공 시스템 구축, 대입전형명칭 표준화, 대학 선발자율권 보장, 계층별-지역별 균형 선발 법제화
- (어린이책시민연대)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 긍정적 의미 부여하나 대입프레임(좋은 대학-좋은 직장-성공적인 삶)에 갇혀서 다른 방식의 삶에 대한 부정·편견이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사회 분위기에 유감
  - 학생들의 삶의 질을 위한 초·중·고 교육의 정상화 논의부터 시작, 학생변화와 과정중심평가를 통한 학교내신 절대평가 도입 필요
- (전국혁신학교졸업생연대) 수능과 EBS 연계로 교육과정 운영이 황폐화되었다고 생각하며, 각각의 환경에 맞는 전형을 가진 학생부전형이 수능보다 더 공정하다고 판단
  - 상대평가는 습관적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며 타인과 경쟁 유발, 절대평가는 과거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며 나의 성장에 집중

-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정상화 측면에서 수시확대, 학생부종합전형의 수정·보완 필요, 내신절대평가와 수능자격고사화 필요
- **(정시확대추진 전국학부모회)** 학·종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 그나마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수능비율이 최소한 50%가 되어야 하며, 학·종은 10%미만으로 선발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회균등전형이나 지역균형전형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늘려야 함.
- **(정의교육시민연합)** 고등학교에서의 교육 성과로 학생을 선발할 필요, 학생부중심선발, 수능은 보조역할, 수시·정시 통합, 수능절대평가 지지
  - 내신절대평가(교과 석차 제공 가능), 대학은 학·종 비교과영역 평가 기준 공개
- **(좋은 학교 바른 교육 학부모회)** 수능 절대평가는 변별력 문제와 하향 평준화 우려가 있어 전 과목 절대평가 반대(일부과목 절대평가 찬성), 정시확대로 수시·정시 비율 적절한 조정 필요
  - 현장에 맞는 점진적이고 느린 변화 요구, 고교학점제 신중한 도입 필요
-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번 제도 개편은 근본적 변화보다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2025 입시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구 즉각 구성 필요)
  -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대학이 학생선발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선 (입시제도 간소화, 대학별 선발학생 상과 선발기준 사전 공개, 무작위 추출 검증과 같은 대학의 선발 공정성 확보장치 마련 필요)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능 5등급 절대평가 도입, 학생부 교과전형을 중심으로 수시 확대(일부 대학의 과도하게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축소), 내신 절대평가 도입, 대학별 논술고사 폐지, 수능 논·서술형 문제 도입 등으로 학교교육 정상화와 입시경쟁 해소, 중장기적으로 대입자격고사화, 대학 서열체제 근본적 해결 필요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학서열체제와 학벌중심사회가 과잉입시경쟁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대학서열체제해소와 대학공공성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수능절대평가와 수능자격고사화, 학생부교과전형 확대 필요, 근본적으로 입시제도 폐지, 고교평준화가 실현되어야함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현행 수능 체제를 유지, 2015교육과정 통합사회·과학의 수능 추가 반대, 학생들의 3년간 성장기록이 담긴 학생부중심전형이 바람직하며 수능상대평가, 내신절대평가 조합으로 학생 부담 경감 및 변별력 확보
- **(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 학생부중심선발, 수시·정시 통합, 수능 절대평가를 지지, 초중등학교에서는 각 교과를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육성한 후 이를 대학입시 시험평가 내용으로 해야 함
- **(학부모연구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입시경쟁 해소, 의미 있는 경험과 21세기 역량 개발, 고교교육정상화 측면에서 학생부위주전형 그대로 추진,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과 학교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수능의 EBS연계 폐지, 문·이과 통합, 수능절대평가(심화과정 수험생 인센티브 부여)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
- **(홍사단 교육운동본부)** 대입 심층 분석에 기초한 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편 필요, 숙의민주주의가 발현되는 공론화과정이 이루어지길 바람



붙임1

학부모 및 시민단체별 주요입장(요약)

구분	선발방법	선발시기	수능평가	그 외 사항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정시와 수능 확대 (정시: 수시, 5:5) (학생부: 수능, 5:5)	-	수능 상대평가 (전 과목 상대평가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능 최저 학력 기준 폐지 철회</li> <li>수행평가, 세특 및 교외활동 폐지</li> </ul>
교육디자인 네트워크	-	수시·정시 통합	수능 절대평가 (궁극적으로 자격고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신절대평가</li> <li>2025학년도 대입제도 논의 필요</li> </ul>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022대입전형은 변경을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능1(공통), 수능2(선택)</li> <li>학생부 고·3만 반영</li> </ul>
교육희망 네트워크	2022대입은 과도기적 부분적 최소한만 수정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	-	수능 9등급 절대평가 (원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등 동점자 처리시에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신절대평가(고·3 선택교과 우선 도입)</li> <li>수능최저기준 폐지</li> <li>고2~3선택과목 수능에서 제외</li> </ul>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현행 유지	수시·정시 통합	수능 절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능 교과목수 축소 (공통과목 위주 출제)</li> </ul>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대학 자율	-	수능 절대평가 (수능전형 대폭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능최저기준 폐지</li> <li>대학의 선발 자율권 보장하되, 계층별, 지역별 균형선발 법제화</li> </ul>
어린이책시민연대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에서 출발하여 대입제도 논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신 절대평가 (학생 변화와 과정 중심 평가)</li> </ul>
전국혁신학교 졸업생연대	현행 유지	-	수능 절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능-EBS연계폐지</li> <li>제도 개편 시 학생들의 의견 반영 필요</li> </ul>
전국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	현행 유지 (일부 대학의 과도하게 높은 학·종 비율 대폭 축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장기적으로 학·종 폐지, 학생부교과 확대 (고교서열화 해소)</li> </ul>
정시확대를 위한 학부모모임	정시 확대 (정시:수시 5:5) (학·종 10%이내)	수시·정시 분리	수능 상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회균등전형이나 지역균형전형은 유지 또는 확대</li> <li>학부모와 학생 의견 존중</li> </ul>

구분	선발방법	선발시기	수능평가	그 외 사항
정의교육시민연합	학생부 위주	수시·정시 통합	수능 절대평가 (선택과목 상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신 절대평가</li> <li>· 학·종 비교과 평가기준 공개</li> <li>· 수능 논·서술형 평가 도입 및 EBS연계 폐지</li> </ul>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정시 확대	-	수능 상대평가 (일부과목 절대평가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대입에서 영어상대평가 전환</li> <li>· 고교학점제 신중 도입 (모든 고교 도입 반대)</li> </ul>
징검다리교육공동체	현행 유지	수시·정시 통합	수능 9단계 절대평가 (A 제공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능 EBS연계폐지</li> <li>· 학생부비교과부담요인제거</li> <li>· 교사추천서폐지</li> <li>· 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시행</li> </ul>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수시 확대 (학생부종합 20%이내 축소, 학생부교과 확대)	수시·정시 통합	수능 절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신 절대평가</li> <li>· 수능최저학력기준 축소 및 폐지</li> <li>· 수능 EBS 연계 폐지</li> </ul>
평등교육실현을 위한전국학부모회	현행 유지 (학생부교과확대)	-	수능 절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입자격고사화</li> </ul>
학교를사랑하는 학부모모임	현행 유지	수시·정시 통합	현행 유지 (과목 추가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능 상대평가, 내신 절대평가</li> </ul>
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	현행 유지 (학생부교과확대)	수시·정시 통합	수능 절대평가 (선택과목 상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신 절대평가</li> <li>· 수능자격고사화, 논서술형평가</li> </ul>
학부모연구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현행유지	-	수능 절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능 EBS연계폐지</li> <li>· 문·이과 통합</li> <li>· 자기소개서 유지</li> </ul>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대학 자율적 선발 기능 존중	-	수능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능 개선</li> <li>· 내신 중 선택교과 절대평가</li> </ul>

### <3. 일반 학생 및 교원 협의회>

####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5.10.(목) 14:00~17:00 /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 참석자 : 교원(중학교 14명, 고교 15명), 학생(중3 14명, 고2 15명)
  - \* 학교유형, 지역규모를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

#### 2. 주요 결과

##### □ 교원 협의 결과

##### 《선발방법의 균형》

- 학생부종합전형은 현재 비율이 적정하며, 오히려 지방 거점 국립대학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 필요
  - 학생부종합전형 도입으로 토론, 발표, 실험 등 학교 현장 많이 변했음
  - 2015 교육과정은 철저하게 학생중심 수업으로 학생부종합전형과 부합
  - 수능은 성적 줄세우기, 문제풀이식 수업, 주요과목 중심 파행적 운영을 유발하며, 과도한 학원 수강 등 또 다른 불공정 문제를 안고 있음
- 수능전형 확대는 학교교육이 기존의 획일적인 대입 준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수능전형 비율 확대 반대
  - 현 단계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대책에 주력하여 대학의 평가철학과 평가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제를 해마다 실시하여 개선 필요
- 1/2은 정시전형이 바람직함. 현재 수능전형 23%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으며,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학생이 희망대학 진학 실패 시 수능전형 23%를 뚫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학생부종합전형은 정상적 수업과 교육 본질에 접근하는 장점이 있으나 감감이 전형, 불평등 전형, 교사의 학생부 기록 업무부담 문제 제기

-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이 문제 개선이 없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은 줄여야한다고 생각함
- 서울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비중이 너무 높은 것 같으며 상위권 대학은 비율을 늘리고 있는데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됨
- 고교 1학년 시기에 학생부 관리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만회하는 방법도 필요하므로 정시전형은 존재해야함
- 과학고는 100% 수시로 입학하고 있으며,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은 현행 유지 필요
- 우수한 학생들 간 내신경쟁으로 대학 진학에 불리하므로 특수목적고에 맞게 내신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선발 필요

### 《선발시기의 문제(수시·정시 통합 여부)》

- 수시·정시를 통합하면 전형기간이 단축되어 대학은 힘들 수 있으나 3학년 2학기 황폐화되는 교실은 살릴 수 있어 수시·정시 통합에 동의함
- 고교교육 정상화의 장점에는 공감하나, 단기간에 상담과 원서 준비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어려우며, 대학별 특색있는 선발방식이 단순화될 가능성 높으므로 수시·정시 통합에 반대

### 《수능 평가 방법》

- 서열과 경쟁보다는 성취평가를 통해 성장과 배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미래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므로 수능 전영역 절대평가 찬성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절대평가 필요
- 절대평가 시 또 다른 시험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되며, 교육적 이상 추구에는 부합지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음. 최종 목적을 생각한다면 상대평가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함
- 영어 90점과 99점은 모두 1등급이나 89점은 2등급인 결과가 과연 합리적인 방법인가 의문이며 원점수 제공 의견임

##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선발의 투명성 제고)》

-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 제출하면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지나친 것 같으며 면접 기능 강화 필요
-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대학 평가 기준과 결과 공개 필요

## 《수능-EBS 연계율》

- 연계율 70% 상황에서 고3 수업 교육과정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
- 연계율 70%를 50%로 축소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

## □ 학생 협의 결과

### 《선발방법의 균형》

- 수능은 재수생에게 유리하고 정보력 확보 측면에서 지방 고교가 불리함,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개별 학생의 성장 발달을 존중하는 교과 외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현행 체제 유지를 주장함
- 공정성의 관점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과 학교 규모에 따른 내신 유불리 문제,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사교육 확대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객관적인 정시 확대를 주장함

### 《선발시기의 문제(수시·정시 통합 여부)》

- 전형 기회 축소를 반대하여 수시·정시 분리하는 현행 체제를 주장함
- 3학년 2학기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시·정시 통합을 주장함

### 《수능 평가 방법》

- 상대평가에 의한 학생 출세우기 문제 및 교우 간 경쟁을 완화할 수 있고 학교 교육에 충실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주장함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 수시 전형에 공정성을 보완할 수 있고 대학수학에 필요한 능력에 대한 측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을 주장함

### 《기타 의견》

- 농산어촌 특별전형 확대, 교과전형 축소, 교과성적의 절대평가, 특기자 및 논술 전형 확대, 수능의 EBS 연계 비판, 수능 3학년 초에 실시 방안, 수능 자격고사화, 시험 시행 5년 예고제, 지역 할당제 확대, 면접 확대 혹은 1박2일 심층 전형



#### <4.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처장 협의회>

#####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 5. 16.(수) 14:00~17:00/ 한국장학재단 회의실
- 참석자 : 대학(9교), 전문대학(6교) 입학처장
  - ※ 입학처장협의회에 추천 요청하여 권역별 대학/전문대학 입학처장 참석

##### □ 주요 협의 내용① : 4년제 대학

###### 《선발방법의 균형》

- 입학자원 감소로 수시전형을 확대해 학생 선발에서 정시전형의 어려움을 줄이는 측면이 있음
- 00권역 사립대학 처장은 수시 비율이 적극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
  - 학생부종합전형은 합격 후 등록율이 낮으나 학생부교과전형은 합격자 등록율이 높음
- 대학 간, 학과 간 입장차가 있어 선발방법의 균형이 존재할지 의문이며,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임
- 적정 비율이 전제된 것처럼 접근하고 있으나, 학교마다 입장이 상이함
- 수도권대학(우수학생 선발 중심), 지방대학(학생충원 중심)은 상당한 입장 차가 있으며, 동일한 잣대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음
- 선발방법의 균형 문제는 주로 서울지역 대학의 문제로 갑자기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된 것을 배경으로 알고 있음
  -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최고 0%이하, 최저 0%이상)만 두고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임
-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해왔음

## 《선발시기의 문제(수시·정시 통합 여부)》

- 수시·정시 통합에는 부정적이지 않으며, 추가 선발 장치가 필요함
- 인적·물적 낭비가 심해 불합리하지만 학생 확보 측면에서는 수시·정시 분리 선호
- 00권역 경우 규모가 큰 대학은 수시·정시 통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규모가 작은 대학\*은 강력하게 구분 유지 입장  
\* 통합한다면 전문대와 동일한 전형 운영 및 추가모집에 대한 정확한 정의 필요 의견
- 00권역은 대부분 대학이 수시·정시 통합에 반대 입장
- 수도권 소재 대학은 대부분 학생부종합전형 시행하고 있는데 학생부종합전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입시기간이 단축되면 학교 간 전형일정 중복, 학생부종합전형 축소 등을 고민해야 함

## 《수능 평가 방법》

- 대학은 상대평가를 원하며, 전과목 절대평가를 시행한다면 원점수 공개 필요
- 00권역 소재 대학 입학처장 대상으로 약식의 설문조사를 해보니 상대평가 유지 원칙 의견이 다수
- 첫 단추는 수능 절대평가 논의이며 절대평가 시 변별이 어려워져 수도권 대학은 우수학생 선발을 위해 대학별고사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수능 원점수 제공의 경우 상대평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임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 고교 간 학력 차가 존재하므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유지하되, 수능 입학자 컷의 80% 수준이라면 교과전형을 보완할 수 있음
-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으면 더 큰 역차별과 학부모 반발이 우려됨
  - 기준이 너무 높지 않다면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임
  - \*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 최저기준 두거나 최저기준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면접을 두거나 단위수 기준 설정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여러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두고 있으며 학과별로 편차도 크므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선발의 투명성 제고)》

-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폐지가 옳은 것인지 의문임
- 자기소개서 폐지에 대해서는 대학 간 입장차가 있으나 대학 자율에 두자는 의견이며, 교사추천서 폐지에는 여러 대학이 찬성함
- 평가기준은 지금도 모집요강에 공개하고 있으나, 선발결과 공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주관적 평가여서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임
-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는 지금도 2인 이상이 심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명문화 가능

### □ 주요 협의 내용② : 전문대학

- (선발방법의 균형) 직업교육기관의 특성을 살려 자율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기초학력수준은 학생부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은 실시하지 않고 있음('19학년도 수능 100% 전형 전문대 1.5%)
- (선발시기의 문제) 직업교육은 미래 직업에 대한 탐구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함. 수시·정시 통합은 단기간 진학지도로 일반대학 위주 진학 초래 우려
- (수능 평가 방법) 수능 전과목 9등급 절대평가 전환으로 학생·학부모 입시 부담 완화 타당
- (직업교육을 위한 전문대학의 별도 대입제도 필요)
  - (모집시기) 모집차수별 전형 운영, 정원외 특별전형 상시모집
    - \* 수능시험일 전 1차, 수능시험일 후 2차, 수능성적 발표 후 3차
  - (학생선발)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위주 전형 운영 및 단순화
    - \* 위주 전형: 학생부위주, 수능위주, 면접위주, 실기위주, 서류위주/대학별로 전형 방법을 8개 이내 운영
  - (입학 전, 고교-대학 연계 사전 직업교육 실시)

## <5. 대입 관련 전문가 협의회>

###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 5. 18.(금) 14:00~17:00/ 한국장학재단 회의실
- 참석자 : 교육평가 전문가, 입학사정관, 민간 대학입시 전문가 등 8명

### □ 주요 협의 내용

#### 《선발방법의 균형》

- 수능과 같은 일제고사는 공교육 정상화에 걸림돌이자 사교육의 원인이며, 학생의 특성과 역량 등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사에 의한 학생 평가권을 인정하는 취지를 살려 수시 확대를 주장함
- 학생부전형의 선발 비율이 과대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수도권 또는 주요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요구됨
  - 주요 10개 대학의 수시전형 학교 내신 합격선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해당 내신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극복 방안이 없음
-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학생선발 경쟁력과 전형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비율 조정은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 침해와 지방대학의 학생모집 위기를 초래할 것

#### 《선발시기의 문제(수시·정시 통합 여부)》

- 현행 수시와 정시 전형의 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수시·정시 전형 시기를 수능 후로 일원화하는 방식에는 찬성이나, 입시전형의 전반적인 틀의 변화를 포함하는 경우(예: 내신 60%+수능 40%)에는 매우 큰 이슈가 될 것임
- 학생부종합전형의 전형기간을 고려해보면 평가 일정상 무리가 있고 수능을 11월 초에 실시하면 고교 3학년 2학기 학교교육 전체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시·정시 통합 반대를 주장함

- 현재 전형기간은 70~95일간이나 수시·정시 통합 시 65~75일로 단축되어 대학의 평가기간 부족, 추가모집 일정 확보 문제 등 발생
- 수능, 내신, 학생부 세 가지 자료를 모두 동시에 제출하게 되어 합격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며 입시를 복잡하게 인식하게될 것임

### 《수능·평가 방법》

- 상대평가는 수험생, 학부모의 과도한 대입준비 부담과 경쟁을 조장하며, 절대평가는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운영과 변화하는 학교 교실 수업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학생의 능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으므로 절대평가를 주장함
- 절대평가 시 동점자 원점수 제공은 원점수 향상을 위한 점수 경쟁이 불가피하며 절대평가를 통한 수능 영향력 축소는 정시 수능전형 축소 혹은 대학별고사 확대와 연계될 수 있고, 변별력 확보를 위해 현행 체제 유지 혹은 원점수제를 주장함
- 대학에는 비슷한 점수대 학생들이 지원하므로 절대평가 전환 시 동점자 문제는 거의 전 대학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아야 함

###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 입시정보가 학부모에게 전달할 경로가 대폭 강화되는 방안 마련 필요
  - 핵심정보를 가진 대학이 책임감을 가지고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수능 과목 구조》

- 수능Ⅰ(공통과목, 절대평가), 수능Ⅱ(선택과목, 상대평가) 분리 방안 제안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 학생부교과전형 및 학생부종합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학생부위주전형 취지를 고려하되 대학의 자율성 및 선택권을 보장

## 4. 대입제도 개편 비공개 좌담회(FGI) 주요 의견

### ◇ 비공개 좌담회(FGI) 개요 ◇

- ▷ 목적 : 학생, 학부모, 교원의 다양한 의견과 논거에 대한 심층 파악
- ▷ 추진일정 : 5.17~19일 3일간(1일 2그룹 진행)
- ▷ 추진방법 : 민간 조사 전문가를 통해 좌담회(FGI) 방식으로 추진
- ▷ 참석대상 : 중·고 진학담당교사 각 15명, 중3·고2 학부모 및 학생 각 15명  
총 6그룹, 90명 참석
- ▷ 대상학교 : 도시규모별, 학교유형별 표본을 추출하여 각 그룹별 15개교 선정  
(중) 광역시 6교, 중소도시 7교, 읍면 2교  
(고) 광역시 7교, 중소도시 6교, 읍면 2교 / 일반고 11교, 특목자사고 2교, 특성화고 2교

### 《 I 그룹 : 고등학교 진학담당교사 》

- (전형비율) 수능 전형은 평가가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학생부 전형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으로 인식의 폭을 확장하는 데에 도움을 주나 지역 등 여건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르다는 한계가 있음.
- (수능 평가방법) 절대평가 도입시 수능은 대학 수학 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조건으로 평가하고 면접 등 대학별 선발방식으로 선발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대학별 고사가 늘어나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오히려 더욱 증가할 거라는 의견이 있음.
- (선발시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발시기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정 변경에 따른 학생들의 혼란과 부담을 우려하여 현행처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 전형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학 나름의 공정한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학생부 간소화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주요자료로 자기소개서는 유지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좋은 점만 나열하는 교사추천서보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학생 선발에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수능-EBS 연계) 고3 수업을 EBS 교재로 진행하여 문제풀이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놓어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면접·구술고사) 구술고사는 학생들이 다시 준비를 해야하는 부담이 있어 학생부나 인성을 평가하는 일반면접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 (수능 과목구조) 2015 개정교육과정에 맞춰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과 통합사회·통합과학은 1학년 공통 교과로 수능을 봐야 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이 있음.

#### 《 II 그룹 : 중학교 진학담당교사 》

- (전형비율) 수능은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의 기회 보장 측면에서 필요하나 문제풀이식·주입식 교육으로 학생들의 사고 확장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학생부 전형은 활동 중심 평가로 창의력 확장을 가능하게 하나 학생 부담 및 사교육 증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수능 평가방법) 절대평가 등급으로 대학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학생 선발은 대학에 맡길 수 있다는 의견과, 대학별 고사가 추가되어 사교육을 조장할 거라는 의견이 있음.
- (선발시기) 선발시기를 통합하면 학생들이 대입 지원시까지 학업에 집중할 수 있고 6회의 지원기회도 충분하다는 의견과, 학생들이 정시나 수시를 선택하게 하고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측면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최저학력기준 폐지시 수시 합격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않아 학습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에 포함하지 않은 요소를 드러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지만 사교육 컨설팅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교사추천서는 학생의 인성적인 면을 강조할 수 있는 형식이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수능-EBS 연계) EBS 교재를 암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기존의 EBS 교재를 활용한 교육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의견과 사교육비가 일부 줄었다는 의견이 있음.
- (면접·구술고사) 면접은 학생부 확인 정도의 면접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구술고사는 대학별 여건에 따라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을 선발하는데 좋은 제도라는 의견이 있음.
- (수능 과목구조) 수능의 목적은 학생의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라서 수학 과목을 단일형으로 하여 학생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과, 통합사회·통합과학 두 과목시험으로 사회과 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음

### 《 Ⅲ그룹 : 고2 학부모 》

- (전형비율) 수능이 가장 공정한 평가방법으로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만회의 기회를 제공하나 사교육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학생부 전형은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으나 3년 내내 부담을 느낀다는 한계가 있음.
- (수능 평가방법) 원점수제가 학생들의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의견과, 상대평가는 학생 선발시 변별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선발시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의 학습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시는 수시대로 정시는 정시대로 준비하는 현행체계가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견이 있음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업 부담 경감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교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음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학생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반면 많은 시간을 들여 작성해야 하고 사교육만 늘어난다는 의견이 있으며, 교사추천서는 교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이 있는 반면 성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점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수능-EBS 연계) 학생들이 EBS 교재를 기준으로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점이 있는 반면, 학교 중심의 학업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면접·구술고사)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측면이 있는 반면 구술면접은 또다른 형태의 시험으로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음.
- (수능 과목구조)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을 위해 통합사회·통합과학을 과목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희망 전공에 따라 탐구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 IV 그룹 : 중3 학부모 》

- (전형비율) 수능이 더 공정하고 뒤늦게 학업을 시작하는 학생에게 기회를 줄 수 있으나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한계가 있으며, 학생부 전형은 꾸준히 준비한 학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으나 학생간의 정보 격차로 인해 기회 차이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음.
- (수능 평가방법) 절대평가는 평가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변별력 확보를 위해 또 다른 전형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선발시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입시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입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발시기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내신, 수능을 모두 준비하는 학생들의 이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준을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어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는 사교육 컨설팅의 문제가 있지만 보완해서 활용하자는 의견과, 교사추천서는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선생님들의 판단을 믿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수능-EBS 연계) EBS가 일종의 수능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하고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면접·구술고사) 면접은 학생부 확인 정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구술이 필요한 전공에서는 구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수능 과목구조)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과 탐구 선택 1과목이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데에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수학 단일형으로 학생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 V 그룹 : 고2 학생 》

- (전형비율) 수능은 똑같은 문제를 푸는 공정한 전형이나 사교육 없이는 힘들다는 한계가 있으며, 학생부 전형은 학교생활을 통해 전체적인 모습을 평가하는 전형이지만 소수 학생들만 특혜를 받는다는 한계가 있음.
- (수능 평가방법) 절대평가는 성적 줄세우기에 따른 학생들의 경쟁 구조를 완화할 수 있으나, 변별력이 없어 수능을 무력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선발시기) 학교 수업 정상화와 수시의 불공평(수시 납치)을 없애기 위해 선발시기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내신, 수능을 모두 준비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므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는 자기 PR의 수단으로 필요하며, 교사 추천서는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교사의 추천으로 학생 선발시 유용하다는 의견과 무조건 학생의 좋은 점만 기술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수능-EBS 연계) EBS 교재로 공부하여 학습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견과 주입식 교육의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면접·구술고사) 면접은 학생부 확인과 인성을 확인하는 용도라는 의견과, 대학별 인재상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구술고사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수능 과목구조) 학생들의 혼란과 학습부담을 고려하여 현행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학 과목은 문이과 통합교육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가/나로 구분하여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 VI그룹 : 중3 학생 》

- (전형비율) 수능이 더 공정하고 뒤늦게 학업을 시작하는 학생에게 기회를 줄 수 있으나 사교육에 따라 지역간 격차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학생부 전형은 학교에서의 활동 중심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좋으나 상위권 학생들에게 몰아주는 한계가 있음.
- (수능 평가방법) 절대평가는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대학의 추가 전형에 따른 부담이 있으며, 상대평가는 변별력이 있으나 수능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선발시기) 고3학년 2학기 수업 정상화와 수시 합격에 따라 정시 기회가 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발시기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시 실패 이후 정시 도전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내신, 수능을 모두 준비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생들간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수학능력 확인용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자기 소개서는 나를 소개하는 또 다른 기회라는 의견과 과장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으며, 교사추천서는 자기소개서보다 객관적이라는 의견과 교사에게 잘 보인 학생이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수능-EBS 연계) 암기식 교육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과 사교육 부담이 축소되고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다는 의견이 있음.
- (면접·구술고사) 구술고사는 학생이 원하는 전공에 대해 평소에 준비해서 답변이 가능할 것이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수능 과목구조) 문·이과 구분을 최대한 줄여야 해서 수학을 단일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학 통합은 불평등하며 수학을 분리하고 잘하는 탐구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